



## 청소년 푸른건강찾기 공모전 캠프를 다녀와서...

대한결핵협회 STOP-TB운동본부와 평택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푸른건강찾기 공모전 캠프’가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및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STOP-TB운동본부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푸른 건강찾기 캠페인’의 세부행사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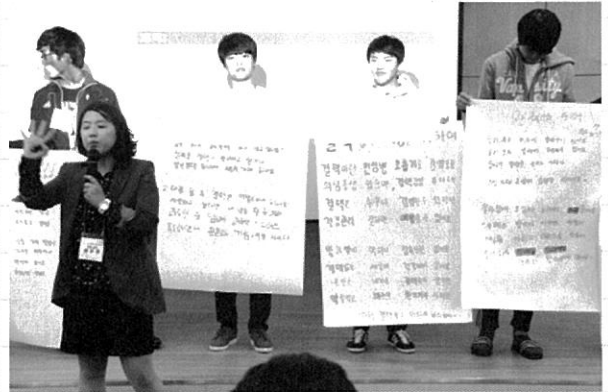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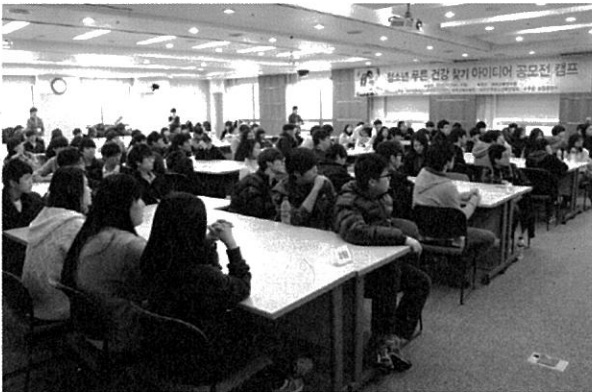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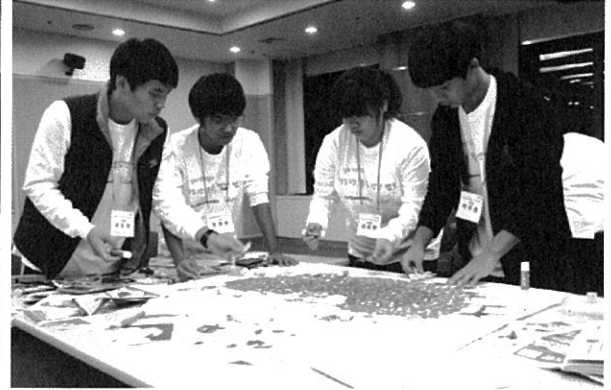
청소년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

학교 결핵집단발생 소식을 마스크를 통해 접할 때마다, 학교 현장에서 결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인지,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결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다.

특히 대입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관문을 앞둔 청소년들이 '결핵에 걸리면 십수 알에 달하는 결핵약을 6개월 이상의 긴 치료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야 하며, 약 복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 탓에 정상적인 학업생활이 어려워져 꿈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들은 결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어쩌면 그들에게 만나라 이야기, 잊혀진 질병일 수 있는 결핵에 대하여 1박 2일이라는 기간 동안 질병의 특성과 그 심각성, 예방의 중요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캠프가 기획되었다. 청소년들의 결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결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할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민도 잠깐. 늘 청소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고민과 관심사에 대해서 고민하는 한국청소년센터 원은정 소장 이하 전문강사들은 자칫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을 수 있는 결핵, 결핵협회라는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너무나 훌륭하게 전달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들이 주체적으로 결핵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결핵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져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신문과, 잡지, 사인펜,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특특 튀는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공모전 작품들과, 팀원들이 가상 결핵협회 직원들이 되어 진행한 결핵협회 세우기 프로그램, 결핵예방홍보습관을 게임과 접목시켜 진행한 슬라이딩 도어즈 등의 프로그램은 특히 인상 깊었다. 이러한 참신한 제안 및 시도들이 협회 관계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다.

사실 여전히 결핵은 사회적으로 무서운 질병이고, 이러한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고민을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홍보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에 미흡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100명 남짓, 많지 않은 수였지만 이들 청소년들은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누구보다 더 명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온 뜻깊은 행사였다.†

